

2019년 11-2호

KIET 경제산업동향

2019. 11

산 업 연 구 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 례 >

< 요 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 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2019.11)]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일본 3분기 성장률 전기비 0.1%, 유로존 0.2% 기록

- 미국은 10월 실물지표들이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혼조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도 혼조 양상을 보인 가운데 3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1.9%로 하락
- 일본은 3분기중 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기비 성장률이 0.1%로 하락, 유로권은 역내 최대국들의 플러스 성장으로 0.2% 성장
- 중국은 10월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도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내·외수 지표들이 부진한 가운데 인민은행은 경기 부양 조치 단행
- 달러화는 중국의 관세 철폐 요구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입장과 홍콩 시위 격화 등에 따른 불안감 등의 영향으로 11월 중순 이후 약세로 전환
- 유가는 11월 초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미·중 무역합의 불확실성 우려와 미국 원유재고 증가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 국내경기 : 3분기 실질GDP 전기비 0.4% 증가, 소비·투자 동반 부진

- 올 3분기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가 전분기보다 현저히 둔화되고, 건설투자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기비 0.4% 성장
 - 지난 9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생산이 감소하면서 3개월 만에 전월비 감소세를 보이고, 소비도 감소 전환, 투자는 전월비 증가세 유지

□ 금 융 : 10월 기업대출·가계대출 동반 확대, 11월 중순(11.18~11.25일) 금리 하락·원화 약세

- 10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보다 더욱 늘어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좀 더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미·중 무역합의 불확실성과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등 대외 요인과 한은의 금리 동결 예상 등 대내 요인으로 인해 하락
- 원/달러 환율은 홍콩 시위 격화로 인한 미·중 무역합의 우려와 중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위안화 약세,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상당 폭 상승

□ 산업별 동향 : 9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 제조업생산은 전자부품과 자동차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짐에도 기타운송 장비와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2% 증가
 - 제조업ICT와 중공업에서는 증가한 반면, 경공업에서는 감소 지속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과 도소매 등에서 감소하고, 보건·사회복지와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1.0%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3.5% 증가, 전월비 기준 1.2% 증가

□ 고용 : 10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1.5% 증가

- 10월 전산업 취업자는 SOC·기타서비스업 등에서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증가율이 1.5%로 상승

□ 수출입 : 10월 수출 -14.8%, 수입 -14.6%, 무역흑자 53억 달러

- 지난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4.8% 감소한 467억 달러, 수입은 14.6% 감소한 41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5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13개의 주력품목 가운데 선박류와 컴퓨터를 제외한 11개 품목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은 여전히 두 자릿수 감소세가 지속

1. 해외경제

□ 미국 : 10월 실물·체감지표 혼조세, 3분기 성장률 1.9%로 하락

○ 지난 10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도 가계와 기업 간의 혼조세를 시현. 3분기 성장률은 소비 둔화와 투자 감소 등 여파로 전기비 성장률이 1.9%로 전분기(2.0%)보다 하락

- 산업생산은 GM 공장의 파업 지속 여파로 자동차 생산의 감소폭이 더욱 확대(-7.2%)되면서 전월비 감소율이 더욱 커진 반면에 소매판매는 자동차·부품(0.5%)과 주유소(1.1%) 판매 등의 증가로 증가세로 전환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에도 기준치(50)를 여전히 밑돌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지수는 미래 기대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올 6월(124.3)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
- 제조업 일자리 수는 전월보다 3.6만명 감소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10월(-5.3만명) 이후 최대 폭 감소하고, 실업률도 소폭 상승
- 지난 3분기중 소비 증가세 둔화와 기업 투자 감소 등 영향으로 전기비 성장률이 1.9%로 하락(전년동기비 성장률은 2016.4분기 이후 최저치)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2.9	3.1 (2.7)	2.0 (2.3)	1.9 (2.0)					
산업생산	3.9	-0.5	-0.6	0.4	0.0	-0.1	0.7	-0.3	-0.8
(IT 생산)	6.4	(1.9)	(-0.2)	(3.7)	(1.2)	(1.8)	(1.6)	(0.4)	(0.1)
내구재수주	7.9	0.3	-3.5	2.2	1.8	2.1	0.2	-1.2	-
소매판매	4.8	0.3	1.9	1.4	0.4	0.7	0.6	-0.3	0.3
소비자물가	2.4	0.2	0.7	0.4	0.1	0.3	0.1	0.0	0.4
실업률(%)	3.9	3.9	3.6	3.6	3.7	3.7	3.7	3.5	3.6
무역수지(10억US\$)	-627.7	-156.5	-163.3	-161.5	-55.5	-54.0	-55.0	-52.5	-
ISM 제조업지수 ¹⁾	58.8	55.4	52.2	49.4	51.7	51.2	49.1	47.8	48.3
소비자신뢰지수 ²⁾	130.1	125.8	128.3	132.1	124.3	135.8	134.2	126.3	125.9
경기선행지수 ³⁾	110.1	111.5	111.8	112.0	111.8	112.2	112.0	111.9	-

자료 : 미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9월 내수지표 혼조세, 올 3분기 성장률 전기비 0.1%로 하락

- 9월 생산 증가 전환과 수주 감소 지속, 소비 확대 등 내수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실물경기의 방향성은 여전히 불확실. 3분기중 소비(전기비 0.4%)와 투자(0.9%)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수출이 감소 전환(0.5% → -0.7%)되면서 전기비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하락(전년동기비 기준 1.3%)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GDP)	0.8	0.5	0.4	0.1					
광공업생산	1.0	-2.5	0.7	-0.5	2.0	-3.3	1.3	-1.2	1.7
민간기계수주	5.1	-3.2	7.5	-3.5	-7.8	13.9	-6.6	-2.4	-2.9
소매판매	1.7	-1.3	0.4	3.2	0.4	0.0	-2.3	4.6	7.2
소비자물가	1.0	0.2	0.1	0.1	0.0	0.0	0.1	0.0	0.0
실업률(%)	2.4	2.4	2.4	2.3	2.4	2.3	2.2	2.2	2.4
무역수지(10억엔)	-1,225	-563	-329	-523	-970	588	-252	-146	-125
경기선행지수 ¹⁾	100.0	96.3	94.8	92.6	95.0	93.6	93.7	91.9	92.2

자료 :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10월 내수지표 둔화, 인민은행 유동성 확대 · 금리 인하 단행

- 지난 10월 생산과 투자,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재차 둔화되고, 수출도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내·외수 여건의 약세를 반영. 인민은행은 11월 들어 유동성 공급에 이어 역RP금리(7일물)도 2015.10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인하(2.55% → 2.50%)하면서 경기 부양 조치 단행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GDP)	6.6	6.4	6.2	6.0					
산업생산	5.7	6.5	5.6	5.0	6.3	4.8	4.4	5.8	4.7
고정투자(누계기준)	5.9	6.3	5.8	5.4	5.8	5.7	5.5	5.4	5.2
소매판매	8.3	8.3	8.5	7.6	9.8	7.6	7.5	7.8	7.2
소비자물가	2.2	1.8	2.6	2.9	2.7	2.8	2.8	3.0	3.8
수출(달러화기준)	9.2	1.0	-1.0	1.8	-1.3	3.3	-1.0	-3.2	-0.9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9월 실물지표 소폭 증가, 3분기 역내 성장률 전기비 0.2%

- 9월중 역내 생산 및 소비가 전월에 이어 소폭 증가세를 보인 반면, 경기 체감지수는 2015.2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 지난 3분기중 독일(0.1%)과 프랑스(0.3%) 등 역내 최대 경제국들의 플러스 성장에 힘입어 0.2% 성장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GDP)	1.8	0.4	0.2	0.2					
산업생산	0.9	0.5	-0.6	-0.9	0.8	-1.4	-0.5	0.4	0.1
소매판매	1.6	0.9	0.6	0.5	-0.3	1.0	-0.5	0.6	0.1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8	1.4	1.4	1.0	1.2	1.3	1.0	1.0	0.8
무역수지(10억유로)	193.3	53.1	51.8	55.2	18.6	17.7	17.1	19.7	18.3
경기체감지수 ¹⁾	111.2	106.0	104.1	102.5	105.2	103.3	102.7	103.1	101.7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약세 전환·유가 변동성 확대

- 11월 들어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 등으로 美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강세를 보인 달러화는 중국의 관세 철폐 요구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입장과 홍콩 시위 격화 등에 따른 불안감 등의 영향으로 다시 약세 전환
- 유가는 11월 초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과 미국의 원유 시추공 수 감소 지속(4주 연속) 등으로 상승세를 보인다, 미·중 무역합의 불확실성 우려와 미국 원유재고 증가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19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25일
엔/달러	111.39	110.86	111.42	108.29	107.85	108.78	106.28	108.08	108.03	108.93
달러/유로	1.1371	1.1218	1.1215	1.1169	1.1373	1.1076	1.0982	1.0899	1.1152	1.1014
미 국채 (10년만기)	2.72	2.41	2.50	2.12	2.01	2.01	1.50	1.66	1.69	1.76
WTI유	57.2	60.1	63.9	53.5	58.5	58.6	55.1	54.1	54.2	57.9
두바이유	65.6	67.6	72.1	63.2	64.8	63.6	59.6	59.9	59.3	62.9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3분기 실질GDP 전기비 0.4% 증가, 소비·투자 동반 부진

○ 올 3분기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가 전분기보다 현저히 둔화되고, 건설투자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기비 0.4% 성장

- 민간소비는 내구재 소비,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에서 각각 증가함에도 전기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민간소비 0.7% → 0.1%, 설비투자 3.2% → 0.5%), 건설투자는 건물과 토목 건설에서 모두 감소하면서 5.2% 감소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GDP성장률	3.2	2.7*	1.7* (-0.4*)	2.0* (1.0*)	2.0** (0.4**)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8	2.8*	1.9* (0.1*)	2.0* (0.7*)	1.7** (0.1**)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16.5	-2.4*	-17.4* (-9.1*)	-7.0* (3.2*)	-2.7** (0.5**)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7.3	-4.3*	-7.2* (-0.8*)	-3.5* (1.4*)	-3.0** (-5.2**)	-	-	-	-
전산업생산지수	2.5	1.4*	-0.6 (-0.8)	0.4 (0.5)	0.5* (1.1*)	-0.9 (-0.7)	0.7* (1.6*)	0.0* (0.2*)	0.5* (-0.4*)
광공업생산지수	2.4	1.3*	-2.1 (-2.9)	-0.7 (1.4)	-0.8* (1.9*)	-2.7 (0.0)	0.6 (2.8)	-3.3* (-1.8*)	0.4* (2.0*)
제조업생산지수	2.2	1.2*	-2.1 (-3.0)	-0.8 (1.6)	-0.7* (1.8*)	-2.8 (0.1)	1.0 (2.8)	-3.3* (-2.0*)	0.2* (2.1*)
서비스업생산지수	1.9	2.1*	1.1 (0.3)	1.4 (0.0)	1.6* (0.9*)	0.1 (-1.1)	1.5 (1.2)	2.4* (1.1*)	1.0* (-1.2*)
소매판매액지수	1.9	4.2*	1.7 (1.3)	2.0 (1.0)	2.4* (0.2*)	1.2 (-1.6)	-0.3 (-0.9)	4.1* (3.9*)	3.3* (-2.2*)
설비투자지수	14.1	-3.7*	-19.6 (-5.4)	-8.7 (1.2)	-3.2* (1.9*)	-9.3 (0.1)	-4.9 (2.2)	-2.9* (1.6*)	-1.6* (2.9*)
건설기성액	10.1	-5.2*	-9.5 (1.8)	-6.4 (-1.8)	-7.6* (-4.1*)	-4.1 (1.5)	-8.1 (-4.6)	-7.4* (0.9*)	-7.4* (-2.7*)
동행종합지수(2015=100)	107.2	109.4*	109.8	110.4	111.1*	110.6	110.7*	111.1*	111.4*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1.1	100.5*	99.4	99.4	99.4*	99.4	99.3*	99.5*	99.5*
선행종합지수(2015=100)	109.3	112.8*	113.8	114.6	115.0*	114.7	114.7*	114.9*	115.4*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2	100.2*	99.0	98.9	98.4*	98.7	98.4*	98.4*	98.5*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지난 9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생산이 감소 전환되면서 3개월 만에 전월비 감소세를 보이고, 소비 역시 감소 전환, 투자는 전월비 증가세 유지
 - 광공업생산은 기계장비(전월비 8.0%)와 자동차(5.1%)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월비 2.0%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생산은 3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소매판매는 준내구재(전월비 -3.6%)와 비내구재(-2.5%), 내구재(-0.1%) 등 전 품목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비 2.2% 감소, 설비투자는 기계류(7.0%)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전월비 증가세를 유지
 -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과 수입액 등이 감소한 반면에, 서비스업생산지수와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3%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코스피지수와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감소한 반면에, 건설수주액과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4% 상승

□ 물가 : 10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2% 하락, 전년동월비 0.6% 하락

- 10월 소비자물가는 통신(전월비 -0.1%)을 제외하고 주택·수도·전기·연료(0.2%), 식료품·비주류음료(0.2%), 음식·숙박(0.2%), 교통(0.6%)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2% 상승(전년동월비 0.0%)
- 10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전월비 -4.7%)에서 비교적 큰 폭 하락한 가운데 공산품(-0.1%)에서 소폭 하락하고, 서비스 부문(0.1%)에서도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전월비 0.2% 하락(전년동월비 -0.6%)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소비자물가	1.9	1.5	0.5 (-0.4)	0.7 (0.4)	0.0 (-0.1)	0.7 (0.2)	0.7 (-0.2)	0.6 (-0.3)	0.0 (0.2)	-0.4 (0.4)	0.0 (0.2)
근원물가	1.5	1.2	1.1 (0.4)	0.9 (0.3)	0.8 (-0.1)	0.8 (0.1)	0.9 (-0.1)	1.0 (-0.2)	0.9 (0.1)	0.6 (0.0)	0.8 (0.2)
생산자물가	3.5	1.9	0.3 (-0.5)	0.4 (0.5)	-0.5 (0.4)	0.4 (0.0)	0.1 (-0.3)	-0.3 (0.0)	-0.6 (0.2)	-0.8 (0.1)	-0.6 (-0.2)
근원물가	3.1	1.6	0.3 (-0.2)	0.3 (0.4)	-0.2 (0.0)	0.3 (0.1)	0.1 (-0.2)	-0.1 (0.0)	-0.2 (0.1)	-0.3 (-0.1)	-0.3 (0.0)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10월 기업대출·가계대출 동반 확대

- 10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모두 확대되면서 전월비 증가폭이 확대
(19.9월 +4.9조원 → 19.10월 +7.5조원, 대기업 +1.1조원, 중소기업 +6.3조원)
 -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출 유치 노력과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자금 수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확대
 - 대기업 대출도 전월비 증가폭이 확대
- CP는 전월과 달리 순상환 규모가 축소
(19.9월 -1.2조원 → 19.10.1~20일 -0.4조원)
- 회사채는 투자수요 지속과 연말 북 클로징을 대비한 선발행 수요 등의 영향으로 순발행 규모가 확대
(19.9월 +0.6조원 → 19.10월 +3.6조원)
-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약간 더 확대
(19.9월 +0.1조원 → 19.10월 +0.5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7		2018		2019				19.10월말 잔액
	연중	10월	연중	10월	연중	8월	9월	10월	
■ 은행 원화대출	38.1	5.6	42.7	4.6	45.2	3.5	4.9	7.5	869.2
(대 기 업)	-3.5	1.9	5.0	1.8	-0.9	-1.9	0.1	1.1	153.7
(중소기업)	41.6	3.7	37.6	2.7	46.1	5.4	4.8	6.3	715.5
<개인사업자>	27.8	2.3	25.0	2.0	21.3	2.7	2.4	2.8	335.1
■ 회사채 순발행	-3.5	-2.2	5.2	0.4	17.2	0.1	0.6	3.6	..
■ CP 순발행	2.3	0.2	0.8	0.6	1.0	-0.1	-1.2	-0.4	19.3
■ 주식발행	13.9	0.5	10.1	0.5	4.7	0.5	0.1	0.5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10월중 금융시장 동향).

- 10월 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에서 증가폭이 모두 늘어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19.9월 +4.8조원 → 19.10월 +7.2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전세 및 매매거래 관련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19.9월 +3.8조원 → 19.10월 +4.6조원)
- 기타대출도 주택 관련 자금수요와 함께 추석 연휴 소비자금 결제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19.9월 +1.0조원 → 19.10월 +2.5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7		2018		연중	2019			19.10월말 잔액
	연중	10월	연중	10월		8월	9월	10월	
은행 가계대출	58.9	6.9	60.8	7.8	46.5	7.4	4.8	7.2	874.1
■ 주택담보대출	37.2	3.3	37.8	3.5	35.2	4.6	3.8	4.6	643.1
■ 기타대출	21.6	3.5	22.6	4.2	11.4	2.8	1.0	2.5	229.8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10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11월 중순(11.18~11.25일) 금리 하락·원화 약세

- 국고채(3년) 금리는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과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등 대외 요인과 한은의 금리 동결 예상 및 2020년도 대규모 국고채 발행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등 대내 요인으로 인해 하락
(11.18일 1.52% → 11.25일 1.48%, 0.04%p 하락)
- 원/달러 환율은 홍콩 시위 격화로 인한 미·중 무역협상의 우려 확대와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른 위안화 약세 지속,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인해 상당 폭 상승(원화 약세)
(11.18일 1,164.5원 → 11.25일 1,176.0원, 12.5원 하락)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17	2018				2019			
		2/4	3/4	4/4	1/4	2/4	3/4	10월	11.25일
국고채(3년)	2.08	2.12	2.01	1.82	1.69	1.47	1.30	1.47	1.48
회사채(3년, AA-)	2.63	2.77	2.45	2.29	2.16	1.97	1.80	1.97	1.99
CD(91일)	1.64	1.65	1.65	1.93	1.90	1.78	1.55	1.44	1.53
CP(91일)	1.79	1.82	1.82	1.97	1.98	1.92	1.72	1.65	1.65
원/달러	1,088.2	1,114.5	1,109.3	1,115.7	1,135.1	1,154.7	1,196.2	1,163.4	1,176.0
원/100엔	966.5	1,014.8	981.2	1,013.2	1,028.2	1,073.4	1,113.4	1,074.1	1,083.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중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9월중 전년동월비 +0.2%, 전월비 +2.1%

- 제조업생산은 의료정밀광학(전년동월비 -22.4%), 전자부품(-7.5%), 자동차(-3.2%)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짐에도 기타운송장비(20.8%)와 반도체(9.7%), 기계장비(3.2%) 등에서 증가세를 보인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0.2%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3.8%)에서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중공업(0.4%)에서도 소폭 증가한 반면, 경공업(-0.9%)에서는 감소 지속
 - 전월비 기준으로는 통신·방송장비(-16.4%)와 반도체(-1.7%) 등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기계장비(8.0%)와 자동차(5.1%), 전자부품(4.1%) 등 다수 부문에서는 증가한 영향으로 제조업 전체 기준 2.1%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1.4)는 반도체와 식료품, 담배 등에서 상승한 반면, 기타운송장비와 전자부품, 자동차 등에서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2.2%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보합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3.7%로 전월비 0.8%포인트 상승,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 감소폭(-2.7% → -0.8%,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이 축소된 반면, 재고 증가폭(6.1% → 8.5%)은 확대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5.6%로 전월보다 2.2%p 상승

□ 서비스업생산 : 9월중 전년동월비 +1.0%, 전월비 -1.2%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전년동월비 -4.3%)과 도소매(-0.1%) 등에서 감소한 반면, 보건·사회복지(4.6%)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3.7%), 금융·보험(2.7%), 정보통신(3.5%)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1.0%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1.1%), 부동산(1.3%), 보건·사회복지(0.9%) 등을 제외하고 도소매(-2.9%), 금융·보험(-1.8%), 숙박·음식점(-2.2%) 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서비스업 전체 기준 1.2% 감소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3.5% 증가, 전월비 기준 1.2%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7년)	2017	2018	2019						
				1/4	2/4	3/4*	7월	8월*	9월*	전월비*
광 공 업 (원지수)	10,000	104.7	106.1	100.2	106.2	104.4	108.9	101.7	102.5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4	1.3	-2.1	-0.7	-0.8	0.6	-3.3	0.4	2.0
제 조 업 (원지수)	9,340.4	104.6	105.9	98.9	106.6	104.5	109.1	101.3	103.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2	1.2	-2.1	-0.8	-0.7	1.0	-3.3	0.2	2.1
섬 유	136.7	-3.1	-6.7	-9.0	-7.5	-3.7	-2.7	-6.8	-1.4	2.4
화 학	831.5	3.5	2.3	-3.1	-6.1	-2.0	-1.2	-3.0	-1.5	1.6
철 강	604.5	1.6	-3.0	-2.4	-2.1	-2.7	-1.1	-4.9	-2.0	2.5
반도체	1,218.3	10.9	20.2	5.8	7.9	8.3	3.3	12.4	9.7	-1.7
컴퓨터, 주변장치	44.5	-10.2	-7.7	2.5	-6.8	-5.7	-2.6	-23.6	12.3	29.1
통신, 방송장비	144.7	-9.7	-7.1	-16.4	-8.4	3.1	-22.7	22.0	7.9	-16.4
의료, 정밀, 광학	186.1	19.1	15.1	-8.3	-11.5	-20.5	-13.3	-25.8	-22.4	5.6
기계, 장비	835.8	13.5	-2.9	-11.4	-6.8	-1.9	-4.5	-4.1	3.2	8.0
자동차	1,066.4	-2.7	-1.4	2.5	1.7	-0.5	14.1	-12.5	-3.2	5.1
조 선	221.1	-29.2	-13.5	9.6	22.2	24.2	26.6	17.6	28.2	2.7
- 중 공 업	-	2.6	2.2	-2.0	-0.8	-0.7	0.7	-2.9	0.4	0.6
- 경 공 업	-	0.1	-3.1	-2.3	-0.9	-1.1	2.4	-5.1	-0.9	-0.5
- 제조업ICT	-	7.1	11.3	-2.2	0.9	1.1	-3.2	2.7	3.8	2.2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4.5	106.7	104.5	108.4	107.6	107.9	108.1	106.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9	2.1	1.1	1.4	1.6	1.5	2.4	1.0	-1.2
도소매	211.3	0.7	1.5	-0.6	-0.1	0.4	-0.3	1.6	-0.1	-2.9
운수, 창고	90.3	1.6	2.1	1.2	-1.3	0.3	-0.2	1.4	-0.4	-1.1
숙박 및 음식점	61.6	-1.9	-1.9	-1.3	-1.3	-2.5	-2.6	-0.7	-4.3	-2.2
정보통신	79.9	1.6	1.4	3.0	3.9	3.3	3.8	2.6	3.5	0.1
금융 및 보험	140.9	5.1	5.8	1.0	1.1	4.4	4.4	5.9	2.7	-1.8
부동산	31.8	1.2	0.2	-2.9	-1.6	0.3	-0.1	0.8	0.4	1.3
전문, 과학 및 기술	71.0	-1.6	0.8	0.6	1.9	2.4	2.6	2.1	2.2	-1.5
사업시설관리 등	47.7	4.2	0.6	-0.2	3.0	3.2	3.8	1.9	3.7	1.1
교 육	106.0	0.0	0.1	-0.8	-0.9	-0.7	-1.2	-1.0	0.3	-0.4
보건 및 사회복지	94.3	6.6	5.6	8.4	9.8	5.6	7.2	5.0	4.6	0.9
예술, 스포츠, 여가	21.7	0.2	-0.6	2.3	0.3	-0.9	-0.9	2.9	-4.3	-4.2
협회, 수리, 개인	32.1	0.0	0.7	-2.2	-0.7	-2.6	-4.7	0.4	-3.3	-1.6
수도, 하수, 폐기물	11.4	0.4	3.0	-1.8	-3.2	0.6	-1.9	2.6	1.5	-4.2
- ICT서비스업	-	-4.3	9.7	-1.1	-4.3	9.7	2.7	4.0	3.5	1.2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5. 고 용

□ 취업자 수 : 10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5% 증가

- 10월 전산업 취업자는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비교적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된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확대(1.3% → 1.5%)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축소(전년동월비 -2.5% → -1.8%)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4.2% → 3.9%)하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1.9% → 2.1%)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주택건설 부진으로 감소세가 확대(-1.9% → -2.5%)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0.3% → 0.8%)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금융및보험업(-5.0% → -6.3%)과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5.5% → -4.3%)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짐에도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0% → 7.0%)과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5% → 7.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4.3% → 4.6%) 등 다수 업종에서 비교적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세도 확대(4.5% → 4.7%, 2013.11월 이후 최고치 증가율)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5%로 2개월 연속 상승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 산 업	26,725	26,822	26,461	27,256	27,382	27,408	27,383	27,358	27,404	27,509
전년동기비	1.2	0.4	0.7	0.9	1.4	1.0	1.1	1.7	1.3	1.5
농림·어업	0.5	4.8	9.6	1.2	3.9	1.6	3.7	3.7	4.2	3.9
제 조 업	-0.4	-1.2	-3.1	-1.4	-1.7	-1.5	-2.1	-0.5	-2.5	-1.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0.5	1.1	1.4	1.8	1.6	1.6	2.0	1.9	2.1
건 설 업	6.4	2.3	-0.4	0.0	0.0	1.1	0.6	1.3	-1.9	-2.5
도소매·음식숙박업	0.6	-1.9	-0.9	0.3	0.5	0.4	0.2	0.9	0.3	0.8
전기·운수·통신·금융	-1.1	3.3	1.2	0.3	-0.8	1.1	-0.4	-1.4	-0.7	-0.7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2.1	0.7	2.6	2.7	3.9	2.5	3.3	4.0	4.5	4.7
실업률 (계절조정, %)	3.7	3.8	3.9	4.0	3.5	4.0	4.0	3.1	3.4	3.5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10월 수출 14.8% 감소, 수입 14.6% 감소, 무역수지 흑자 53억 달러

○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4.8% 감소한 467억 달러, 수입은 14.6% 감소한 41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5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반도체 업황 부진과 유가 하락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지난해 10월 수출 호조(549억 달러)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큰 폭 감소하면서 11개월 연속 감소세

- 수입은 원유 수입액이 대폭 감소하고, 설비투자 감소 여파로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수입도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두 자릿수 감소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65.6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17.9% 떨어지고, 도입물량도 17.6%나 감소하면서 금액 기준으로 32.4% 감소한 52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0월
수출	5,737 (15.8)	6,049 (5.4)	1,327 (-8.5)	1,386 (-8.6)	1,349 (-12.2)	461 (-11.0)	441 (-13.9)	447 (-11.7)	467 (-14.8)	4,528 (-10.4)
수입	4,785 (17.8)	5,352 (11.9)	1,237 (-6.6)	1,288 (-3.3)	1,249 (-4.1)	437 (-2.6)	425 (-4.3)	387 (-5.6)	414 (-14.6)	4,188 (-5.8)
무역수지	952	697	90	98	99	23	16	60	53	339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선박류와 컴퓨터 제외한 11개 주력 품목의 수출 감소

○ 반도체 : 스마트폰·PC의 고사양 탑재 증가 등 메모리 수요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들의 재고 영향으로 인해 D램 가격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지난해 10월 반도체 수출 역대 2위 기록에 따른 기저효과(116억 달러, 전년동월비 22.1% 증가) 영향으로 수출이 큰 폭 감소

- **자동차** : 최대 수출시장인 대미 수출 호조의 영향에도, 미·중 무역분쟁의 기화 등에 따른 세계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신흥국 수요 감소 지속과 유럽 시장 위축, 지난해 10월 수출 호조(전년동월비 35.8%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
- **자동차부품** : 베트남 현지 기업들의 신차 양산으로 對아세안 수출이 증가함에도, 미국의 자동차 소비시장 정체 지속,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중국시장 침체 및 공유차량 확산 심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
- **선박류** : 2017년 하반기 이후 선박 상황이 개선되면서 증가한 수주 선박이 본격적으로 인도되고 있으며, 주력 선종인 LNG 운반선과 VLCC선의 인도가 증가한 데 힘입어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
- **디스플레이** : 해외 기업들의 신제품 판매 호조 영향으로 OLED 수출이 증가한 반면에, 출하량 감소 및 단가 하락으로 LCD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체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
- **무선통신기기** : 해외 기업들의 신형제품 생산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부분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교체주기 연장 추세와 글로벌 휴대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전환
- **철 강** :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들의 물량 공급 확대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인한 수출단가 약세 지속, 전방산업(자동차, 건설 등)의 침체로 인한 판재류 수출 부진, 주요 시장인 북미 지역의 수입 규제로 인한 강관류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 **섬 유** : 계절적 성수기(9~10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확산 및 교역환경 악화 등으로 중국·동남아·유럽 지역으로의 섬유소재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이 감소
- **석유제품** :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 및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에 따른 석유제품 단가 하락, 중국 등 아시아 내 정제설비 증설에 따른 경쟁 심화, 정기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

- **석유화학** :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수요 부진, 사우디 석유시설의 정상화에 따른 단가 하락, 정기보수 증가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지난해 10월 석유화학 수출의 역대 최고 기록(45억 달러, 전년동월비 41.9%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
- **일반기계** : 카자흐스탄 내 대규모 석유화학 시설 투자로 인한 관련 기계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중국 건설기계 시장 둔화와 국내 기업들의 현지 투자 공장 가동 중단, 미국 내 신규 투자 감소, 지난해 10월 일반기계 수출의 역대 최고 기록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 **가 전** : 우리나라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해외 현지에서의 우수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쿼터 소진, TV부문에서 중국·일본 기업과의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
- **컴퓨터** : 서버 및 PC 시장의 위축, 낸드(NAND) 공급 초과 지속에 따른 수출단가 회복 지연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출이 1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0월
자동차	3.8	-1.9	4.7	8.9	10.3	21.5	4.6	3.9	-2.3	6.7
자동차부품	-9.5	-0.1	3.0	-7.2	-0.7	1.4	-5.3	1.9	-6.6	-2.4
선박류	23.1	-49.6	-24.6	49.2	39.1	-7.1	168.0	30.8	25.7	12.8
일반기계	11.4	10.2	0.5	0.5	-4.5	-5.0	-6.6	-1.7	-12.1	-2.4
철 강	20.0	-0.7	-1.8	-8.1	-17.6	-21.8	-19.9	-9.3	-12.3	-9.8
석유화학	23.5	11.9	-10.3	-15.9	-16.8	-12.5	-19.6	-18.5	-22.6	-15.2
석유제품	32.0	32.3	-4.2	-13.0	-14.2	-9.5	-16.2	-16.6	-26.4	-12.7
섬 유	-0.5	2.5	-7.0	-8.5	-8.6	-6.7	-13.2	-5.9	-6.8	-7.9
가 전	-22.1	-18.3	-6.1	-2.3	-1.4	2.2	-7.1	0.3	-6.5	-3.7
무선통신기기	-25.5	-22.7	-27.2	-21.0	-17.0	-30.6	-18.9	0.6	-6.7	-20.1
컴퓨터	9.5	17.2	-33.7	-36.5	-24.8	-24.1	-31.8	-18.6	7.7	-28.2
반도체	57.4	29.4	-21.4	-23.6	-30.3	-28.1	-30.7	-31.6	-32.1	-26.0
디스플레이	9.0	-9.9	-11.6	-13.8	-19.9	-18.3	-23.7	-17.2	-22.5	-16.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부 록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	-------------------------

현대경제연구원(2019.11.15일)

□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경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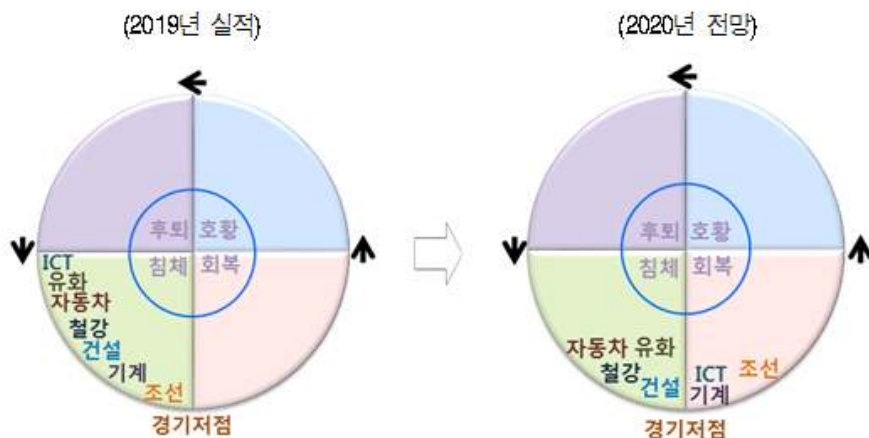
- (거시경제 동향) 최근 한국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이거나, 경기종합지수가 횡보하면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 다만 여전히 다수의 하방 위험 요인 존재
- (주요 산업경기 동향) 최근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도 둔화하고 있어 전반적인 산업경기에 회복 모멘텀은 여전히 부재

□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

- (건설업) SOC 예산 확대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 등으로 공공·토목부문 수주는 증가할 전망이나, 부동산 규제 강화, 주택 초과공급 등으로 민간·건축부문 수주는 둔화세 지속이 예상
 - 건설기성액, 건설수주액이 모두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며, SOC 예산 확대 등으로 공공·토목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관련 규제 지속 등으로 민간·건축 수주는 소폭 감소가 예상
- (ICT제조업)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모두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5G 본격 도입, OLED 시장 확대 등으로 소폭 회복
 -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3대 주력품목 부진으로 생산 및 출하 지수가 하락했으나, 최근에 소폭 회복되는 모습
- (자동차산업) 세계경기의 제한적 회복과 국내의 부진한 민간소비로 자동차산업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나, 신차 효과와 원화 약세 및 친환경 차 수요의 증가세 유지 가능성 등으로 둔화폭이 다소 완화
 - 자동차산업은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둔화 국면에 있으며, 세계경기의 제한적 회복과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자동차 수출 수요가 둔화되고, 부진한 민간소비로 내수수요 또한 둔화 전망
- (철강산업) 2020년 철강산업은 주요 수요 산업 부진으로 철강재 내수 수요 및 생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불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하며 경기 불황 국면이 지속되며, 세계 철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산업인 건설·자동차 산업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철강 생산은 소폭 감소할 전망

- **(석유화학)**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 성장 둔화, 내수 부진 등으로 침체 국면이 지속되겠으나, 세계경기 회복 등의 모멘텀은 침체 완화 요인
 - 글로벌 수요 둔화,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확대되는 등 침체 국면
- **(조선업)** 장기간 지속된 세계경기의 미약한 회복 및 글로벌 교역 불안 요인 상존 등으로 조선업 경기의 개선 정도는 역시 미약할 전망
 - 세계경기 회복세 미약과 글로벌 교역 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제한적
- **(기계산업)** 2020년 기계 산업은 일부 전방산업(ICT)의 업황 소폭 회복, 설비투자의 플러스 전환,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개선 전망
 - 일부 전방산업 업황의 소폭 회복, 설비투자의 플러스 전환, 기저효과 등으로 기계산업은 소폭 개선될 전망

<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



□ 시사점

- 대외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국내 경기 회복 도모를 위한 신중한 경제 정책이 요구되며,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통상 마찰 방지에 주력
-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환경 개선에 정책적 비중을 높이고, 건설투자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SOC 조기 착공과 공공주택 발주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주택 시장에 대한 기존의 안정화 정책 기조는 유지
-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산업 지형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산업전략을 마련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11.25)	(11.26)	(11.27)	(11.28)	(11.29)
 9월 경기선행지수 (수 정 치)	 11월 소비자신뢰지수	 19.3분기 실질GDP (수 정 치)  10월 대주재수주(잠)  10월 개인소비  11월 소비자신뢰지수	 10월 무역수지(수)  10월 소매판매(잠)  11월 경제제감지수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10월 실 업 륜  10월 산업생산(잠)  11월 소비자물가예  10월 실 업 륜  10월 산업활동동향  금융통화위원회 (12.1)  11월 수출입통계
(12.2)	(12.3)	(12.4)	(12.5)	(12.6)
 11월 ISM 제조업지수  11월 소비자물가	 19.3분기 실질GDP (잠 정 치)	 11월 ISM 비제조업지수	 9월 소매판매  19.3분기 실질GDP (예 비 치)  9월 무역수지	 10월 경기선행지수 (잠 정 치)  11월 고용보고서
(12.9)	(12.10)	(12.11)	(12.12)	(12.13)
 19.3분기 실질GDP (수 정 치)	 11월 소비자물가  연준FOMC-12.11일	 11월 소비자물가  11월 고용동향	 10월 기계수주  10월 산업생산  ECB 통화정책회의	 10월 소매판매(수)  10월 산업생산(수)  11월 소매판매
(12.16)	(12.17)	(12.18)	(12.19)	(12.20)
 11월 산업생산  11월 소매판매  11월 고정투자	 10월 수출입통계  11월 산업생산	 11월 무역수지(잠)  11월 소비자물가(수)  BOJ 통화정책회의	 11월 경기선행지수	 11월 소비자물가  19.3분기 실질GDP (수 정 치)  11월 개인소비  10월 생산자물가